



2024 상반기 성인성서연구

3. 5(화) ~ 6. 13(목)

화요조찬 - 오전 6:30 (개강 : 3월 5일, 선교관 2층 제1예배실)

바울의 전도 여정을 함께 걷다

복음의 확산지이자 성경의 땅으로서 바울의 전도 여정을 함께 걸으며, 복음 전파에 열정적이었던 바울의 발자취에 담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돌아보고자 합니다.

화요일 강의 - 오전 10:00 (개강 : 3월 5일)

강의 제목	강사	장소
여호수아	니영덕 목사	선교관 B2
사사기 강해 - 진정한 영웅	정제헌 목사	분당 B2
산상수훈	이순기 목사	분당기도처
마가복음 - 고난을 넘어서는 승리의 여정	유지미 목사	분당 B1
요한복음	이우성 목사	2교육관 B2
로마서와 '화목'	홍성민 목사	선교관 B1
고린도교회와 복음	박형진 목사	2교육관 B1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	장재원 목사	선교관 2
청지기 수업	조성실 목사	분당 B2

목요일 강의 - 오전 10:00 (개강 : 3월 7일)

강의 제목	강사	장소
모세와 함께 걷는 "출레민" 산책	한정운 목사	선교관 B2
복된 삶을 위하여	권정혁 목사	선교관 B1
사무엘상 함께 읽기	임교현 목사	2교육관 B1
성경해석과 내러티브	김영규 목사	분당 B2
마가복음 산책	이재겸 목사	선교관 2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탄생에서 승천까지)	주요한 목사	분당 B1
로마서 강해	류현조 목사	분당 B2
데살로니가서	이성민 목사	2교육관 B2

Bridge3040 - 목요일 오후 8:00 (개강 : 3월 7일)

강의 제목	강사	장소
중심에 서는 교회	이재용 목사	온라인

온라인 지구 - 금요일 오후 09:00 (개강 : 3월 8일)

강의 제목	강사	장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김경래 목사	온라인(월 1회 온-오프 병행)

*소속된 지구와 관계없이 성경공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March | 2024



FAITH

하늘을 여는 기도
하늘의 비밀을 품고 4

깊어지는 영성
새로운 이스라엘의 첫 수업 | 김경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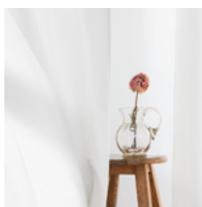
목상에 붙임
걷는 목상 | 로완 윌리엄스 10

WORD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준비·이해·적용·기도 14

말씀 개관
베드로전서 16

3월 본문
베드로전서·예레미야·고난주간 본문 20
1주(3/4) | 2주(3/11) | 3주(3/18) | 4주(3/25)



COMMUNICATION

땅끝에서 온 편지

이곳에 꽃들이 | 조현규·정명진 62

소망사랑방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어 | 백문희 98

신앙과 삶

인간, 하나님의 형상 | 김경래 132

공간공감

Cross | 홍성찬 168

이달의 기도

승고한 길을 뒤따르게 하소서 172

소망마당

새 학기, 새 찬양의 기쁨을 드려요 | 교회학교이동팀 174

가정예배

3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178

그림묵상

예루살렘 입성 | 이호연 184

예배자의 길

3월, 우리의 고백 | 안진현·김경은·이영주 186

가정탐구

떠남과 연합 | 홍인종 190

일과 영성

믿음과 투자 | 방선기 194

소망뉴스

2월 소식 198

하늘의 비밀을 품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어리석게도 나의 욕망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잠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인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살았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깊어지는 영성



새로운 이스라엘의 첫 수업

글 김경진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이 소개됩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첫 번째 기적으로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 주셨을까요? 다양한 해석 중에 먼저 “가나 혼인 잔치의 이적은 누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한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야기의 앞뒤로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결론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제자들을 위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이 관점에서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시면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요 1:47-51).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될 이스라엘 공동체를 꿈꾸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타개하시는 데 하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하신 말씀에 한 번, “거기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심에 한 번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어디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연회장이 물을 마실 때 이미 새로운 포도주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과정을 보고 있던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일련의 과정 없이도 얼마든지 물을 포도주로 만들거나,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포도주를 보충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채우라.”하시며 물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셨고, 하인들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뉠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행하자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 있고, 말씀에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시고 영광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능동적으로 부르짖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마치 무인도에서 SOS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능동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발견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결국은 수동형입니다.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것도 능동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마지막에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인들이 능동으로 말씀에 순종하자, 수동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요 2:11)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레슨입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할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첫 번째 레슨은 “나의 말을 따라라. 그러면
너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
고, 가져다주라는 말씀에 그대로 따를 때 하인들과 제자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미련하게
붙잡고 그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으며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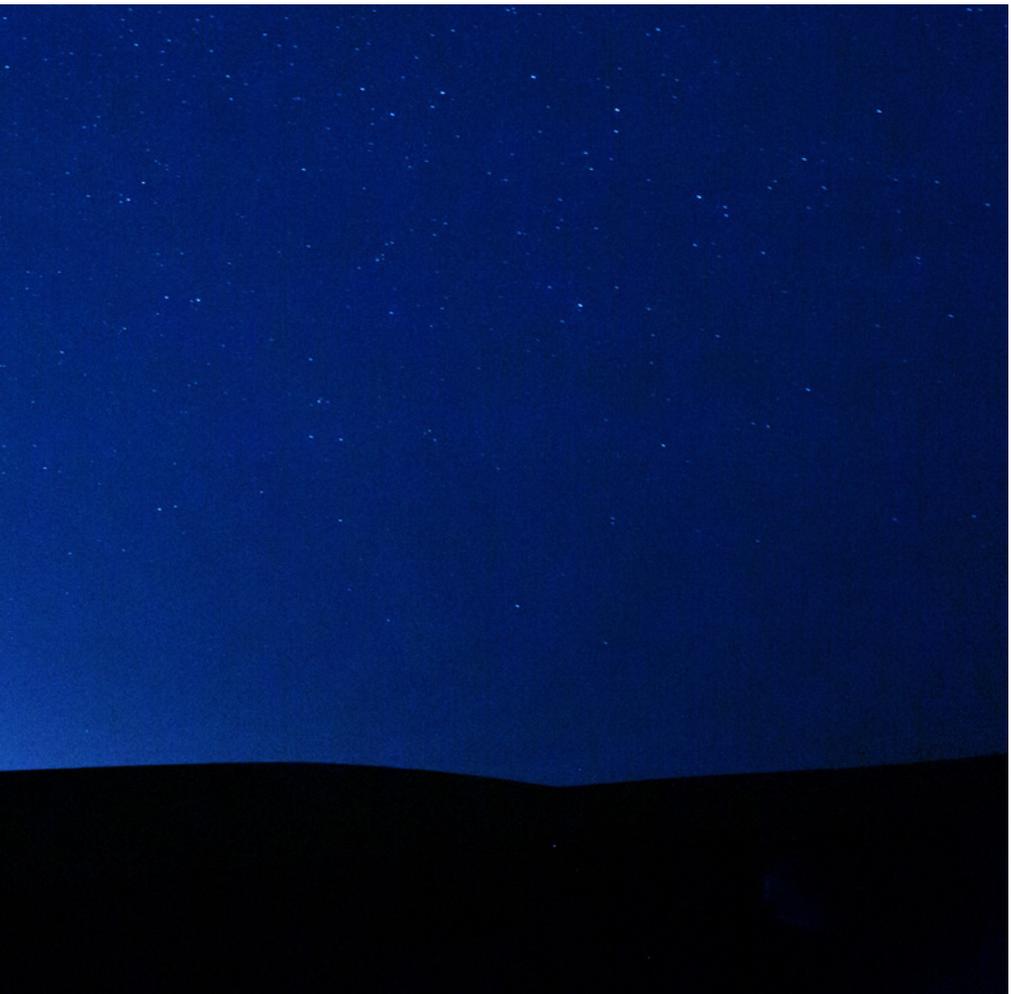


걷는 묵상

글 로완 윌리엄스



묵상의 여정은 ‘하나님’에서 시작됩니다. 영원하면서도 언제나 우리와 한없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데서 여정은 출발합니다. 그다음엔 ‘나’를 만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마주합니다. 이후 세례, 침묵, 사막, 더 깊은 침묵, 사랑, 신비, 밤, 새벽 그리고 부활을 차례로 이어 갑니다. 묵상에 더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²God’s Heart’이라고 부르는 글귀가 있습니다.



십자가, 온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사랑의 징표
하늘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만나는 그곳.
생명의 나무가 다시 심기는 그곳.
복된 열매가 맺히는 바로 그곳.
십자가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네.
세례에서 생명의 징표를 받은 우리.
한 빵을 떼며 생명을 받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깨닫네.

걷는 목상은 하나님을 향해 이 세계의 지표면을 걷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길’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이 만물의 근원이신 분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일부임을 되새깁니다.

이 길을 따르기 위해서 꼭 교회에 마련된 산책로를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거룩한 여정을 걸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여정은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를 떠나서, 새로운 창조세계 안에서 시작될 새롭고 고양된 삶을 미리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을 느긋하면서도 어여뻐 여기는 마음으로 걸으며 장소와 더불어 말하고 노래하는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간, 모든 장소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감지해야 합니다. 린세핑 대성당의 순례길은 이런 글귀로 끝맺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받은 소명을 따르는 일에 더 충실해지기를,
동시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 로완 윌리엄스 『어둠 속의 촛불들』(비아, 2021) 103~107쪽.

WORD

베드로전서 · 예레미야 · 고난주간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망말씀나눔 본문에 따른 새벽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App Store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안드로이드폰 : T Store 혹은 Google Play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문의 : 교회사무실 02-512-9191 (내선 141~145)

말씀 속으로

1 베드로전서 1:1-5

골로살 성령님 사바오타 370부 찬양하는 나뭇가

말씀 속으로

-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티아, 카파도키아, 아시아의 영토들에 흩날린 그리스도인들에게
Peter, an apostle of Jesus Christ, to God's elect, exiles scattered throughout the provinces of Pontus, Galatia, Cappadocia, Asia and Bithynia,
-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것으로 순종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명함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오니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라
who have been chosen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the Father, through the sanctifying work of the Spirit, to be obedient to Jesus Christ and partakers with his blood of Grace and peace be yours in abundance,
-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 위대하신 긍휼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믿어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소망이 있게 하시어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great mercy he has given us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20

1단계 : 준비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

말씀 앞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놓거나 묵상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여겨지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1~3장)

베드로전서는 첫 절에서 나오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오늘날 터키로 추정되는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편지다. 약 1세기 후반에 기록된 그의 편지는 2천 년이 지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읽히며 묵상되고 있다. 흩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의 충고가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부른다. 이방 땅 방방곡곡에 흩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치 나그네와 같기 때문이다. 영적인 본향을 떠나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땅에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나그네.

나그네라고 불리는 그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짐이 상당히 버거워 보인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되새겨 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보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1:3)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으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가진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한다. 그러므로 근심은 잠깐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한다.

불의 연단을 받은 이들은 장차 도래할 영광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땅의 삶을 살아갈 이들에게 베드로는 거룩한 삶을 지킬 것을 명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믿음을 지켜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1:16)라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내야 한다.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헛된 행실을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지해야만 한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한 순전한 삶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에 사회 속에서 두드러지고 돋보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거나 순전함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버림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산 돌이 되시어 모퉁잇돌이 되셨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외면당하는 삶이지만 예수님의 모퉁잇돌 위에 세움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긍휼을 받은 대로 살아갈 것을 명한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하는 삶의 모습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다. 진리에 순종하며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명한다. 또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제도에 순종하기를 권한다. 자유가 있되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행을 이루어야 한다. 자기

자리에 부여된 규율을 따르며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을 올려 드려야 한다.

베드로가 이처럼 선행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순전한 삶의
모범을 보이며 이를 위해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일 뿐이지만 그리스도
인들은 영혼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의 선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베드로전서의 의미는 오늘날 독자들에게까지도 깊은 의미를 남기고 있다. 현재의 문제와 고
난들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게 하며,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
엇인지 되새기도록 격려한다. 지금 겪는 고난들이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며 결코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유업이 될 것이다.

한눈에 보는 이달의 본문

1~2일 주간		
1(금)	베드로전서 1:1~5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인사
2(토)	예레미야 11:18~12:13	예레미야를 향한 음모와 질문
4~9일 주간		
4(월)	예레미야 12:14~13:11	이웃 백성들을 향한 경고와 허리 띠 비유
5(화)	베드로전서 1:6~9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고난
6(수)	1:10~13	예언자들의 증언
7(목)	1:14~17	하나님이 거룩하듯 너희도 거룩하라
8(금)	1:18~21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
9(토)	예레미야 13:12~27	포도주 가죽부대 비유
11~16일 주간		
11(월)	예레미야 14:1~22	기근과 백성들의 기도
12(화)	베드로전서 1:22~25	썩지 않을 씨
13(수)	2:1~5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14(목)	2:6~10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15(금)	2:11~17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6(토)	예레미야 15:1~21	임박한 벌의 예고
18~23일 주간		
18(월)	예레미야 16:1~21	예레미야의 삶을 통한 비유
19(화)	베드로전서 2:18~21	선으로 고난을 받으라
20(수)	2:22~25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21(목)	3:1~7	아내와 남편이 이루어야 할 선
22(금)	3:8~12	도리어 복을 빌라
23(토)	예레미야 17:1~18	유다의 죄와 벌
25~30일 고난주간		
25(월)	요한복음 12:1~8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
26(화)	요한복음 12:20~36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27(수)	요한복음 13:1~20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
28(목)	요한복음 13:31~35	새 계명
29(금)	요한복음 19:17~30	십자가
30(토)	요한복음 19:38~42	예수님의 무덤

3

March 2024

SUN

MON

TUE

WED

3

4

5

6

화요조찬 성경공부
· 성인성서연구(화요일) 개강

10

11

12

13

17

18

19

20

권사회 월례회

24/31

부활주일(31)
세례 · 입교식(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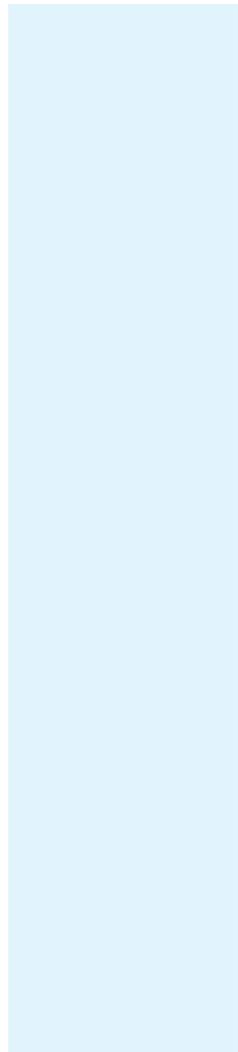
25

26

27

4	S	M	T	W	T	F	S
Apri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HU	FRI	SAT
	1 삼일절	2
7 성인성서연구(목요반) 개강	8 여전도회 연합예배	9
14	15 1차 세례교육(~16)	16
21	22 2차 세례교육(~23)	23
28 고난주간 목요성찬	29 고난주간 금요예배	30



1

—
금요일
삼일절

베드로전서 1:1~5

오늘의 찬송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말씀 속으로

-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Peter, an apostle of Jesus Christ, To God's elect, exiles scattered throughout the provinces of Pontus, Galatia, Cappadocia, Asia and Bithynia,

-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who have been chosen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the Father, through the sanctifying work of the Spirit, to be obedient to Jesus Christ and sprinkled with his blood: Grace and peace be yours in abundance.

-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great mercy he has given us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
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and into an inheritance that can never perish, spoil or fade.
This inheritance is kept in heaven for you,

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
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who through faith are shielded by God's power until the
coming of the salvation that is ready to be revealed in the last
tim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베드로가 흠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1~2).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가진 그가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수신자들은 터키 타우루스 산맥의 북쪽 지역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흠여진 나그네’라 부릅니다(1절). 왜 나그네라 부를까요? 이 표현은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이란 이유로 로마의 핍박을 받아 흠여짐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과, 영적인 차원에서 본향을 그리워하며 세상에 흠여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나그네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신시켜 주고, 경건한 삶을 권면하며 고난에 대한 위로를 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흠여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2절).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구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신자들의 정체성을 알려 줍니다(3~5).

베드로가 편지의 본문을 시작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긍휼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크신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듭남을 주셨습니다. 수신자들은 비록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는 나그네 처지이지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3절).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픔과 고통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당면하고 있는 사회의 억압과 핍박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의 찌어 없어질 것이 아닌 하늘의 참된 유업을 받은 자들임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5절). 베드로는 편지의 서두에서 수신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임을 인정하고 기억하게 하며 권고에 마음을 열도록 청하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베드로전서는 세상 곳곳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핍박은 약 2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나에게 보낸 편지로 여기며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어 봅시다.
2.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3~5절을 다시 되짚어 보며 말씀 앞에 선 내가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2:25~28 ²⁵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²⁶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²⁷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햇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²⁸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

토요일

예레미야 11:18~12:13

오늘의 찬송 342 너 시험을 당해

 말씀 속으로

- 18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 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Because the LORD revealed their plot to me, I knew it, for at that time he showed me what they were doing.

- 19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 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I had been like a gentle lamb led to the slaughter; I did not realize that they had plotted against me, saying, "Let us destroy the tree and its fruit; let us cut him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that his name be remembered no more."

- 20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But you, LORD Almighty, who judge righteously and test the heart and mind, let me see your vengeance on them, for to you I have committed my cause.

-
- 21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says about the people of Anathoth who are threatening to kill you, saying, "Do not prophesy in the name of the LORD or you will die by our hands" -

- 22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I will punish them. Their young men will die by the sword, their sons and daughters by famine,

- 23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Not even a remnant will be left to them, because I will bring disaster on the people of Anathoth in the year of their punishment,"

- 1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You are always righteous, LORD, when I bring a case before you. Yet I would speak with you about your justice: Why does the way of the wicked prosper? Why do all the faithless live at ease?

- 2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므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지이다

You have planted them, and they have taken root; they grow and bear fruit. You are always on their lips but far from their hearts.

- 3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머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Yet you know me, LORD; you see me and test my thoughts about you. Drag them off like sheep to be butchered! Set them apart for the day of slaughter!

- 4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How long will the land lie parched and the grass in every field be withered? Because those who live in it are wicked, the animals and birds have perished. Moreover, the people are saying, "He will not see what happens to us."

- 5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If you have raced with men on foot and they have worn you out, how can you compete with horses? If you stumble in safe country, how will you manage in the thickets by the Jordan?"

-
- 6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
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Your relatives, members of your own family - even they have betrayed you; they have raised a loud cry against you. Do not trust them, though they speak well of you.

- 7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
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I will forsake my house, abandon my inheritance; I will give the one I love into the hands of her enemies.

- 8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 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라

My inheritance has become to me like a lion in the forest. She roars at me; therefore I hate her.

- 9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
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Has not my inheritance become to me like a speckled bird of prey that other birds of prey surround and attack? Go and gather all the wild beasts; bring them to devour.

- 10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
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Many shepherds will ruin my vineyard and trample down my field; they will turn my pleasant field into a desolate wasteland.

- 11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 이로다

It will be made a wasteland, parched and desolate before me; the whole land will be laid waste because there is no one who cares.

- 12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벚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 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 지 못하도다

Over all the barren heights in the desert destroyers will swarm, for the sword of the LORD will devour from one end of the land to the other; no one will be safe.

- 13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는 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 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They will sow wheat but reap thorns; they will wear themselves out but gain nothing. They will bear the shame of their harvest because of the LORD's fierce ang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레미야에게 악인의 음모가 밝혀집니다(18~12:6).

예레미야를 향한 고향 사람들의 음모가 폭로됩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을 의미합니다(1:1). 그들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예레미야를 곱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예배가 중앙에 집중되며 고향의 많은 제사장들이 일거리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향해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19절).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이시자 그가 원통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동시에 그가 하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악한 자의 행동과 평안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당혹스럽습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5절) 앞으로 일어날 박해가 더 클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믿지 말라는 경고로 마칩니다. 가족들마저 배신하는 척박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역을 이어 갑니다.

2. 자기 백성을 버리며 하는 말씀에 아픈 마음이 서려 있습니다(7~13).

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비추고 있습니다.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 주었다.”(7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던 이’를 버리기까지 하신 고뇌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를 원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원수와 적군들이 쳐들어와 유다를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포도원이 망쳐지고 농장이 짓밟혔습니다. 아끼는 밭이 사막이 되고 온 땅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엔 강도떼가 들끓고 땅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유다를 겨누니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패망은 그들이 힘이 없고 정치를 잘 못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와 분노가 그들에게 사무치며 동시에 말씀의 뒤편에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믿음의 생활 중에는 예레미야처럼 큰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온전히 믿지는 않아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벌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속한 환경에서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1:1~6 ¹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² 시를 읊으면서 소구를 두드려라.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가락으로 거문고를 타라. ³ 새 달과 대보름날에, 우리의 축제날에, 나팔을 불어라. ⁴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킬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며, ⁵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에,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⁶ "내가 네 어깨에서 짐을 벗겨 주고, 네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3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3/3~9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사편 147:2)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월요일

예레미야 12:14~13:11

오늘의 찬송 295 큰 죄에 빠진 나를

 말씀 속으로

- 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 내리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As for all my wicked neighbors who seize the inheritance I gave my people Israel, I will uproot them from their lands and I will uproot the people of Judah from among them.

- 15 내가 그들을 뽑아 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But after I uproot them, I will again have compassion and will bring each of them back to their own inheritance and their own country.

- 16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 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And if they learn well the ways of my people and swear by my name, saying, 'As surely as the LORD lives' - even as they once taught my people to swear by Baal - then they will be established among my people.

17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But if any nation does not listen, I will completely uproot and destroy it," declares the LORD.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베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This is what the LORD said to me: "Go and buy a linen belt and put it around your waist, but do not let it touch water."

2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So I bought a belt, as the LORD directed, and put it around my waist,

3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a second time:

4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띠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테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Take the belt you bought and are wearing around your waist, and go now to Perath and hide it there in a crevice in the rocks."

5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테
물가에 감추니라

So I went and hid it at Perath, as the LORD told me.

12:17 순종하지 아니
하면
히브리어) 들지 아니
하면

- 6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Many days later the LORD said to me, "Go now to Perath and get the belt I told you to hide there."

- 7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So I went to Perath and dug up the belt and took it from the place where I had hidden it, but now it was ruined and completely useless.

- 8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 9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In the same way I will ruin the pride of Judah and the great pride of Jerusalem.

- 10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These wicked people, who refuse to listen to my words, who follow the stubbornness of their hearts and go after other gods to serve and worship them, will be like this belt - completely useless!

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For as a belt is bound around the waist, so I bound all the people of Israel and all the people of Judah to me,' declares the LORD, 'to be my people for my renown and praise and honor. But they have not listene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하나님께서 열방을 뽑고 다시 세우십니다(14~17).

하나님께서 유다를 원수의 손에 넘기시자 원수와 적군들이 유다를 황무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은 황량한 땅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유다를 점령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우세해서가 아니라 유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훼손한 이웃 나라들을 이후에 쫓아내겠다고 하십니다. 그 뒤에는 유다의 구원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악한 이웃 나라들을 뽑아 버리고 유다 백성들을 구해 내어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말씀입니다(15절). 그들은 원래 자신들의 기업과 땅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때 유다를 점령했던 이웃 나라들도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같이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유다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유다가 자신의 하나님을 잊고 이방의 우상을 섬긴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다의 심판 및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2. 썩은 베 허리띠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1~11).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보여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허리띠를 하나 사서 얼마간 자기 허리에 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지역의 바위틈에 두었는데 그곳은 강가였습니다. 허리띠에 점차 물이 스며들고 맙니다. 며칠이 지나자 허리띠는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앞으로 유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상징입니다. 이 비유에서 허리띠는 유다 백성입니다. 띠를 허리에 단단히 동이듯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단단히 동여매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마치 띠에 물이 서서히 스며들듯이 불신앙이 그들의 내면에 침투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썩어 버려 전혀 쓸모가 없어진 허리띠와 같이 되었습니다. 허리띠 비유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시작했지만 결국 부패하고 만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유다의 이웃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유다가 대적해야 할 것은 이웃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입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에도 타인이 아닌 나를 돌아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2. 허리띠를 단단히 동이듯 하나님께 잘 매여 있습니까? 띠를 썩어 버리게 하는 물은 나에게 어떤 것 과 같겠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2:5~8 ⁵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⁶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일곱 번 걸쳐 낸 순은이다. ⁷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⁸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5

베드로전서 1:6~9

화요일

오늘의 찬송 540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말씀 속으로

-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In all this you greatly rejoice, though now for a little while you may have had to suffer grief in all kinds of trials,

- 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These have come so that the proven genuineness of your faith - of greater worth than gold, which perishes even though refined by fire - may result in praise, glory and honor when Jesus Christ is revealed.

- 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Though you have not seen him, you love him; and even though you do not see him now, you believe in him and are filled with an inexpressible and glorious joy,

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for you are receiving the end result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그리스도인에게 근심은 한순간일 뿐입니다(6~7).

로마의 핍박을 받아 이곳저곳으로 흩어짐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환경은 실로 척박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여러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전하고 있는 베드로도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지금 잠시 동안’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입니다(7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근심은 지나갈 일입니다. 오히려 연단 뒤에 있을 영광이 있기에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육신의 연약함 아래 종속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면 고난 뒤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을 것을 전합니다.

2.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8~9).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재에도 구원의 은혜가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지금 순간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의 즐거움을 맞춥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억압이 믿음의 참된 즐거움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참된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며 어두운 나그네 된 삶의 여정을 걸어 나갈 등불이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그리스도인이어서 얻게 되는 고난은 후에 주어질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시련의 끝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2.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즐거이 누리며 나의 마음을 드러보십시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6:7~10 ⁷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⁸ 주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⁹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¹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6

수요일

베드로전서 1:10~13

오늘의 찬송 545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말씀 속으로

- 10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Concerning this salvation, the prophets, who spoke of the grace that was to come to you, searched intently and with the greatest care,

-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trying to find out the time and circumstances to which the Spirit of Christ in them was pointing when he predicted the sufferings of the Messiah and the glories that would follow.

-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It was revealed to them that they were not serving themselves but you, when they spoke of the things that have now been told you by those who have preached the gospel to you by the Holy Spirit sent from heaven. Even angels long to look into these things.

13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Therefore, with minds that are alert and fully sober, set your hope on the grace to be brought to you when Jesus Christ is revealed at his coming.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10~12).

베드로가 당대에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의 상황을 우려하며 믿음의 확신을 주고자 합니다. 선지자의 예언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 구약을 살펴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뒤에 도래할 영광의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선지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이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영광과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은혜는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약속된 은혜입니다. 또한 천사들도 보기 원하는 은혜입니다. 복음 맡은 자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부지런히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2. 고난 중에도 힘을 내어 온전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13).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아래에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살아 있는 소망과 구원의 은혜, 하늘의 유업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13절) 허리를 동이듯 마음을 단단히 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산 소망’은 낙관적인 미래의 구원이 아닙니다. ‘산 소망’은 지금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회의 억압과 고난이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할 때 더욱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은 소매를 걷은 것처럼 일할 태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소망은 마음의 준비를 하여 어떠한 고난과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의 삶의 방식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더욱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2. 온전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바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의심과 낙심, 절망과 유혹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9~11 ⁹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¹⁰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¹¹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베드로전서 1:14~17

오늘의 찬송 488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말씀 속으로

- 14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As obedient children, do not conform to the evil desires you had when you lived in ignorance.

-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But just as he who called you is holy, so be holy in all you do;

- 16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for it is written: "Be holy, because I am holy."

- 17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Since you call on a Father who judges each person's work impartially, live out your time as foreigners here in reverent fea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14~16).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순종하는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전에 살던 방식대로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좇던 욕망은 언젠가는 썩고, 더럽고, 쇠하게 될 것들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입니다(16절).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부르신 분의 거룩함과 부합하기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관습을 따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백성들이 항상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거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습관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스스로 의를 만들어 내 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17).

하나님께서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를 보신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내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며 그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흐트러지는 모양을 가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몸은 영이 있어야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함은 믿음을 동반해야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의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 눈치를 봐야 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쌓일 때 그리스도인의 습관이 형성되며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을 수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2. '나비효과'라는 말처럼 작은 선택이 삶의 기류를 흔듭니다. 나는 매 순간마다 모든 선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크고 작은 선택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경외의 습관이 삶에 배일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6:5~9 ⁵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⁶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⁷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⁸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⁹나그네를 지켜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8

—
금요일

베드로전서 1:18~21

오늘의 찬송 449 예수 따라가며

 말씀 속으로

-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For you know that it was not with perishable things such as silver or gold that you were redeemed from the empty way of life handed down to you from your ancestors,

-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 lamb without blemish or defect,

- 20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He was chos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but was revealed in these last times for your sake,

21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Through him you believe in God,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glorified him, and so your faith and hope are in Go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예수님의 은혜로 헛된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18~19).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전과 후의 삶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믿음 이전의 삶을 ‘헛된 생활방식’이라고 말합니다(18절). 구원받은 삶은 헛된 생활방식으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삶입니다. 결국 썩고 쇠할 것들로부터 해방을 얻게 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허리를 동이고 온전히 바라며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원동력과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은이나 금과 같은 이 땅의 힘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 없고 티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말미암습니다(19절).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2.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20~21).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은 특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던 자들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언이 향하고 있던 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기다려야 하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미 성취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마음의 힘을 써 온전한 소망과 바람을 가져야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예수님의 구원은 현재의 삶을 회복해 가십니다. 아직 주님과 함께 이겨 나가야 할 삶의 ‘헛된’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2.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참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6:8~11 ⁸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⁹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깨달은, ¹⁰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¹¹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2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오 하리니

“Say to them: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Every wineskin should be filled with wine.’ And if they say to you, ‘Don’t we know that every wineskin should be filled with wine?’

- 13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then tell them, ‘This is what the LORD says: I am going to fill with drunkenness all who live in this land, including the kings who sit on David’s throne, the priests, the prophets and all those living in Jerusalem.

- 14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I will smash them one against the other, parents and children alike, declares the LORD. I will allow no pity or mercy or compassion to keep me from destroying them.”

-
- 15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Hear and pay attention, do not be arrogant, for the LORD has spoken,

- 16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Give glory to the LORD your God before he brings the darkness, before your feet stumble on the darkening hills. You hope for light, but he will turn it to utter darkness and change it to deep gloom.

- 17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
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 떼가 사로잡힘으
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If you do not listen, I will weep in secret because of your pride; my eyes will weep bitterly, overflowing with tears, because the LORD's flock will be taken captive.

- 18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
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Say to the king and to the queen mother, "Come down from your thrones, for your glorious crowns will fall from your heads."

- 19 네겔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The cities in the Negev will be shut up, and there will be no one to open them. All Judah will be carried into exile, carried completely away.

- 20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 떼, 네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Look up and see those who are coming from the north, Where is the flock that was entrusted to you, the sheep of which you boasted?

- 21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What will you say when the LORD sets over you those you cultivated as your special allies? Will not pain grip you like that of a woman in labor?

- 22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And if you ask yourself, “Why has this happened to me?” - it is because of your many sins that your skirts have been torn off and your body mistreated.

- 23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Can an Ethiopian change his skin or a leopard its spots? Neither can you do good who are accustomed to doing evil.

24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 같이 흩으
리로다

"I will scatter you like chaff driven by the desert wind.

25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
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
이라

This is your lot, the portion I have decreed for you," declares the LORD, "because you have forgotten me and trusted in false gods.

26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I will pull up your skirts over your face that your shame may be seen -

27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
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
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your adulteries and lustful neighings, your shameless prostitution! I have seen your detestable acts on the hills and in the fields. Woe to you, Jerusalem! How long will you be unclean?"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포도주 가족부대 비유로 가르칩니다(12~14).

상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포도주 가족부대’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라고 말합니다(12절). 그것을 시답지 않게 여기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쳐서 깨지게 하고, ... 그들을 붙잡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13~14절) 여기서 포도주는 ‘술 취함’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다시 나타날 ‘진노의 술잔’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25, 48장).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참담한 위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강력한 말씀에 백성들은 모두 자신들 가까이 있는 포도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 백성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2. 그들의 교만을 경고합니다(15~27).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일침을 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미 어두워진 후에는 빛을 고대해도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전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안전이 지켜질 것이라고 여기는 듯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을 보고 심령 중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왕과 황후가 끌려갈 날이 올 것이며, 북방나라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그들은 자신의 신세를 보며 한탄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냉혹합니다. “바로 네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22절). 유다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그들이 고난 이후에 우상에서 떠나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포도주가 가족부대마다 가득 차듯이 유다의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2. 유다의 죄악에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주어지지만 우둔한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1~6 ¹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²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³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⁵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⁶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이곳에 꽃들이

글 조현규·정명진 (일본 선교사)

살롱!

저희 가정은 일본 오이타현에 있는 벳부교회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총회세계선교부로부터 파송을 받아 일본에서 사역한 지 7년이 되었고, 이곳 벳부로 온 지는 5년이 지났습니다. 벳부는 온천지로 유명한 곳이며, 한국 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저희 가정은 이곳 벳부에 있는 '벳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벳부교회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로 매주 35명 정도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의 특징은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절반 이상이 일본으로 유학을 온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주된 사역은 청년사역입니다. 청년들을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 중심의 교회이다 보니,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청년들이 대부분 유학생이라 졸업 후 거의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육

하고 훈련시킨 청년들이 떠날 때마다 마음이 허전하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학생 중심의 교회라서 재정적으로 여전히 자립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 주셨고,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24년간 교회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벧부교회를 위해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가정 모두가 벧부를 사랑하고,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딸 은별이는 작년 4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일본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도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잘 따라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둘째 딸 은솔이는 일본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과 속에서 잘 자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내인 정명진 선교사와 저는 가끔 운동도 하고, 온천을 즐기면서 벧부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온 가족이 영육의 강건함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 두 딸이 지금처럼 일본 학교와 유치원에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과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 벧부교회 재정을 지켜 주시고, 필요한 일꾼들이 날마다 채워지도록
- 벧부교회의 사명인 일본인 선교, 재일동포 선교, 유학생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0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3/10~16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퍼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사편 136:12)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예레미야 14:1~22

오늘의 찬송 309 목마른 내 영혼

 말씀 속으로

1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와의 말씀이라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that came to Jeremiah concerning the drought:

2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Judah mourns, her cities languish; they wail for the land, and a cry goes up from Jerusalem.

3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The nobles send their servants for water; they go to the cisterns but find no water. They return with their jars unfilled; dismayed and despairing, they cover their heads,

4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The ground is cracked because there is no rain in the land; the farmers are dismayed and cover their heads,

5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Even the doe in the field deserts her newborn fawn because there is no grass.

6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Wild donkeys stand on the barren heights and pant like jackals; their eyes fail for lack of food.”

7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Although our sins testify against us, do something, LORD, for the sake of your name. For we have often rebelled; we have sinned against you.

8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You who are the hope of Israel, its Savior in times of distress, why are you like a stranger in the land, like a traveler who stays only a night?

9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 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Why are you like a man taken by surprise, like a warrior powerless to save? You are among us, LORD, and we bear your name; do not forsake us!

- 10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This is what the LORD says about this people: “They greatly love to wander; they do not restrain their feet. So the LORD does not accept them; he will now remember their wickedness and punish them for their sins.”

- 11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Then the LORD said to me, “Do not pray for the well-being of this people.

- 12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Although they fast, I will not listen to their cry; though they offer burnt offerings and grain offerings, I will not accept them. Instead, I will destroy them with the sword, famine and plague.”

- 13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 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But I said, “Alas, Sovereign LORD! The prophets keep telling them, “You will not see the sword or suffer famine. Indeed, I will give you lasting peace in this place.”

-
- 1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Then the LORD said to me, "The prophets are prophesying lies in my name. I have not sent them or appointed them or spoken to them. They are prophesying to you false visions, divinations, idolatries and the delusions of their own minds.

- 15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says about the prophets who are prophesying in my name: I did not send them, yet they are saying, 'No sword or famine will touch this land.' Those same prophets will perish by sword and famine.

- 16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And the people they are prophesying to will be thrown out into the streets of Jerusalem because of the famine and sword. There will be no one to bury them, their wives, their sons and their daughters. I will pour out on them the calamity they deserve.

- 17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Speak this word to them: “Let my eyes overflow with tears night and day without ceasing; for the Virgin Daughter, my people, has suffered a grievous wound, a crushing blow.”

- 18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If I go into the country, I see those slain by the sword; if I go into the city, I see the ravages of famine. Both prophet and priest have gone to a land they know not.”

- 19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Have you rejected Judah completely? Do you despise Zion? Why have you afflicted us so that we cannot be healed? We hoped for peace but no good has come, for a time of healing but there is only terror.

- 20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We acknowledge our wickedness, LORD, and the guilt of our ancestors; we have indeed sinned against you.

-
- 21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꺾이지 마옵소서

For the sake of your name do not despise us; do not dishonor your glorious throne. Remember your covenant with us and do not break it.

- 22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Do any of the worthless idols of the nations bring rain? Do the skies themselves send down showers? No, it is you, LORD our God. Therefore our hope is in you, for you are the one who does all thi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칼과 기근을 피할 수 없습니다(1~18).

유다의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며 백성들은 기력을 잃습니다. 들의 암사슴들은 자기 새끼를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7절)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하나님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완강합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11절)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열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에는 거짓과 헛됨이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심판은 ‘그들의 악’의 대가입니다.(16절).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와 같이 단호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은 모두의 말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들의 멸망에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제사장은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2. 백성이 주께 간구하기 위해 나옵니다(19~22).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에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 한 절 맞지 않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기도만 보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잘 깨우치고 진실로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의로 행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기도의 어구가 아무리 바르고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기도는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기도 외의 본문에서 20절과 같은 회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진실된 마음으로 드러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호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실로 탄복하며 드리지 않는 기도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백성들의 기도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들의 회복에 초점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진심어린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예레미야의 요청에도 뜻을 바꾸지 않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백성들의 멸망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인지 묵상해 봅시다.
2. 백성들의 기도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8:1~4 ¹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² 연기가 날려 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³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베드로전서 1:22~25

오늘의 찬송 218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말씀 속으로

- 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Now that you have purified yourselves by obeying the truth so that you have sincere love for each other, love one another deeply, from the heart.

- 2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For you have been born again, not of perishable seed, but of imperishable, through the living and enduring word of God.

- 24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For, "All people are like grass, and all their glory is like the flowers of the field;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25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but the word of the Lord endures forever.” And this is the word that was preached to you.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22).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과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거룩함과 정결함에 부합한 모습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22절). 그리스도인의 삶은 홀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시듯이,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거듭남과 소망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 살아 있는 것인지 드러냅니다.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강조하며 말합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은 뜨거운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2. 썩지 않을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23~25).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23절). 다시 태어난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기존의 것은 뒤로 하고 새로운 모습과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왜 새로움이 필요할까요? 썩고 쇠할 것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 새로워져야 할까요? 영원하고 썩지 않을 것으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쇠할 것이되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이사야서를 빌려 하나님 말씀의 영원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24~25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고난은 지나갈 것이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썩을 것으로 인한 고통은 잠깐의 일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2.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구별할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야 하는 삶이지만 영원한 것을 구별하며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5:4~6 ⁴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⁵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⁶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 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 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3

—
수요일

베드로전서 2:1~5

오늘의 찬송 412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말씀 속으로

-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Therefore, rid yourselves of all malice and all deceit, hypocrisy, envy, and slander of every kind.

-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Like newborn babies, crave pure spiritual milk,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 3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now that you have tasted that the Lord is good.

- 4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As you come to him, the living Stone - rejected by humans but chosen by God and precious to him -

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you also, like living stones, are being built into a spiritual house to be a holy priesthood, offering spiritual sacrifices acceptabl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위선을 버리고 순수한 신령을 사모하십시오(1~3).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세상의 고난을 받지만, 동시에 참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또 하나의 권면을 합니다.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모두 버리라고 말합니다(1절). 이것들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조금씩 섞으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악을 다룰 줄 아는 것이 큰 악을 막으며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것을 그리워하십시오.”(2절) 어떠한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고 신령한 생명의 양분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크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맞본 사람이라면 세상에 걸친 발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이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 당연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 마지막에는 거룩한 성소를 이룰 것입니다(4~5).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되셨으나 부활하시어 영광을 받고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불의하고 전망이 암담할지라도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의 무게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의 모퉁잇돌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성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을 받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 자들이요, 사회 속에서 소외를 당하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버림받은 돌이 아닌 성전을 이루는 거룩한 이들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참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지혜와 타협 사이에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른 분별력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십시오.
2. 예수님께서 먼저 보배로운 산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들도 신령한 집의 산 돌과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하십시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9:7~11 ⁷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⁸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 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 준다. ⁹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¹⁰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¹¹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6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For in Scripture it says: "See, I lay a stone in Zion, a chosen and precious cornerstone, and the one who trust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 7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Now to you who believe, this stone is precious. But to those who do not believe,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ornerstone,"

- 8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and, "A stone that causes people to stumble and a rock that makes them fall." They stumble because they disobey the message - which is also what they were destined for.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God's special possession,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Once you were not a people, but now you are the people of God; once you had not received mercy, but now you have received mercy.

2:6 사 28:16

2:7 시 118:22

2:8 사 8:14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돌입니다(6~8).

베드로가 이사야와 시편을 다시 빌리면서 예수님을 비유한 모퉁잇돌의 말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6절). 모퉁잇돌은 건축의 기초 토대이며 집의 중심인 존재입니다. 세상의 건축자들로 부터는 버려지는 돌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모퉁잇돌이 되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담당할 것입니다(7절). 6절 말씀에서 주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버려지는 돌을 모퉁잇돌로 두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시온 위에 두어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믿는 자들은 그 돌 위에 서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모퉁잇돌이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지금은 비록 나그네와 같으나 예수님의 산 소망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2.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9~10).

이제 베드로가 지금은 흠어져 고난을 받으나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9절)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며 험하고 미약한 모습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빛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공회함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업적을 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빛의 백성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예수님의 모퉁잇돌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2.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발을 딛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자신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부여한 꼬리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되새겨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8:7~9 ⁷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⁸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쁨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⁹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Dear friends, I urge you, as foreigners and exiles, to abstain from sinful desires, which wage war against your soul.

-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Live such good lives among the pagans that, though they accuse you of doing wrong,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God on the day he visits us.

- 13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Submit yourselves for the Lord's sake to every human authority: whether to the emperor, as the supreme authority,

- 14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or to governors, who are sent by him to punish those who do wrong and to commend those who do right.

15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For it is God's will that by doing good you should silence the ignorant talk of foolish people.

16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Live as free people, but do not use your freedom as a cover-up for evil; live as God's slaves.

17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Show proper respect to everyone, love the family of believers, fear God, honor the empero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11~12).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한 뒤에 논점을 바꾸어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을지라도 이방인의 문화 안에서 살아야 하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을 염려하며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고 명합니다(11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가오는 유혹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선한 행실’을 유지하라고 가르칩니다(12절). 선한 행실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잠깐 있을 근심보다 영원한 구원으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실에 거룩하여 하나님께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썩어질 은과 금이 아닌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2. 땅의 권위에도 복종해야 합니다(13~17).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권력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의 제도에도 순종하되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13절). 인간의 제도를 지키는 목적은 선으로 어리석은 무지한 입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15절). 예수의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의 제도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16절). 칼뱅(J. Calvin)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로운 섬김과 섬기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자유는 어떤 모양일까요? 베드로는 사회로부터 벗어나 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간의 제도를 지키며, 사랑의 본을 보임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 경건의 모양이 다양해지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의 삶의 모습과 행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한지 되돌아보십시오.
-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된 자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9:1~4 ¹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²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³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은 우렛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서 큰 물을 치신다. ⁴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 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Then the LORD said to me: “Even if Moses and Samuel were to stand before me, my heart would not go out to this people. Send them away from my presence! Let them go!”

- 2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됴므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And if they ask you, “Where shall we go?” tell them, “This is what the LORD says: “Those destined for death, to death; those for the sword, to the sword; those for starvation, to starvation; those for captivity, to captivity.”

- 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I will send four kinds of destroyers against them,” declares the LORD, “the sword to kill and the dogs to drag away and the birds and the wild animals to devour and destroy.”

-
- 4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흠으리라

I will make them abhorrent to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because of what Manasseh son of Hezekiah king of Judah did in Jerusalem.

- 5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Who will have pity on you, Jerusalem? Who will mourn for you? Who will stop to ask how you are?”

- 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You have rejected me,” declares the LORD. “You keep on backsliding. So I will reach out and destroy you; I am tired of holding back.

- 7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I will winnow them with a winnowing fork at the city gates of the land. I will bring bereavement and destruction on my people, for they have not changed their ways.

15:4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흠으리라
그들로 세계 열방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라

- 8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I will make their widows more numerous than the sand of the sea. At midday I will bring a destroyer against the mothers of their young men; suddenly I will bring down on them anguish and terror.

- 9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The mother of seven will grow faint and breathe her last. Her sun will set while it is still day; she will be disgraced and humiliated. I will put the survivors to the sword before their enemies," declares the LORD.

- 10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마는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Alas, my mother, that you gave me birth, a man with whom the whole land strives and contends! I have neither lent nor borrowed, yet everyone curses me.

-
- 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The LORD said, "Surely I will deliver you for a good purpose; surely I will make your enemies plead with you in times of disaster and times of distress.

- 12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Can a man break iron - iron from the north - or bronze?"

- 13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 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Your wealth and your treasures I will give as plunder, without charge, because of all your sins throughout your country.

- 14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I will enslave you to your enemies in a land you do not know, for my anger will kindle a fire that will burn against you."

- 15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LORD, you understand; remember me and care for me. Avenge me on my persecutors. You are long-suffering - do not take me away; think of how I suffer reproach for your sake.

15:12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이 어찌 능히 북방의 철과

16

—
토

- 16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When your words came, I ate them; they were my joy and my heart's delight, for I bear your name, LORD God Almighty.

- 17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I never sat in the company of revelers, never made merry with them; I sat alone because your hand was on me and you had filled me with indignation.

- 18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Why is my pain unending and my wound grievous and incurable? You are to me like a deceptive brook, like a spring that fails.

- 19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says: "If you repent, I will restore you that you may serve me; if you utter worthy, not worthless, words, you will be my spokesman. Let this people turn to you, but you must not turn to them.

20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I will make you a wall to this people, a fortified wall of bronze; they will fight against you but will not overcome you, for I am with you to rescue and save you," declares the LORD.

21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 하리라

"I will save you from the hands of the wicked and deliver you from the grasp of the cruel."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하나님의 계획이 확고합니다(1~9).

유다의 멸망 앞에서 예레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확고한 대답과 함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아픔만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구할지라도 백성들의 멸망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1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판 계획을 바꾸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리어 르밧세를 상기시키며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백성을 보게 하십니다. 심판은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네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6절) 자기의 백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7절)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선포는 확고합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해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예레미야의 솔직한 기도가 올려집니다(10~21).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에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멸망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백성들은 회복과 평화를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과 달리 정직하게 멸망을 말하는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탄복에도 완강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레미야가 힘든 말을 쏟아 놓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16절).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으며 주님만을 위해서 고독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자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18절) 예레미야의 처절한 마음이 보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예언자에게 분명한 말씀과 위로를 주십니다. 경솔하게 말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튼튼한 놋쇠 성벽과 같이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한량없는 사랑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2. 예레미야도 어려운 상황 앞에 하나님께 자신의 힘듦을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기보다 위로하십니다. 나의 기도에도 힘든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2:6~11 ⁶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⁷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 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 보며 너의 조연자가 되어 주겠다." ⁹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 둘 수 있는 분별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¹⁰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¹¹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어

글 백문희 (집사)

드디어 5주간 32명의 의료선교팀의 릴레이 기도가 마치고, 설 연휴 하루 전날 캄보디아 포이뎃 빈민촌을 향하는 Sky Angkor Airlines로 모였다. 포이뎃 빈민촌은 도박과 마약이 즐비한 도시에서 어린 아이들의 앵벌이로 집안 생계를 유지하는 마을로, 1970년대 한국의 전기와 수도 없는 깊은 산골 같은 곳이다. 출국 전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 주정부에서 의료봉사활동 허가서를 미리 받았다. 그곳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등 교회의 호칭을 그대로 쓸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작년 추석에 갔던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선생님이란 호칭을 영어단어 공부하듯이 연습해야 했다. 불교 국가 봉사를 출발하며 이슬람교 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한 번 더 해야겠다는 마음이 보태어졌다.

도착한 빈민촌의 진료에서는 영어과 대학생들의 통역으로 환자와 소통할 수 있었다. 미리 크메리어와 영어, 한글로 된 차트를 준비했고, 의학 용어를 알아듣지 못할 때는 그림을 그려 가며 설명했다. 진료 이틀째는 소문으로 환자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그러나 한국의 진료 번호 표처럼 스티커를 미리 준비한 접수팀의 완벽한 예행연습이 있어 수백 명의 환자 폭풍에도 끄떡 없었다. 김치 한 점 있는 점심 도시락은 더위에 지친 오전 진료 후 꿀맛이었고, 권사님이 주시는 커피 한 잔은 오후 환자 부대를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 완벽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산전 초음파 한 번 못 받고 출산해야 하는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를 제공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초음파가 이곳에서는 큰 은혜의 순간이었다. 태아와의 첫 통신 같은 '통

통통' 심장 박동 소리! 통역 학생 스리넛은 산모수첩을 훑내 낸 핑크와 블루 빛 카드에 “쁘레아 예수 스릴란 네악(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이라는 메시지와 산모 이름을 크메르어로 예쁘게 썼고, 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붙였다. 할렐루야! 산모 카드를 받고 미소가 가득해진 산모의 얼굴은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초음파의 문턱이 낮은 한국의 의료혜택에 다시 한 번 하나님과 선배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선교사님 사무실인 초음파실 밖에서 밥과 사역을 하시는 이기원 선교사님의 식사기도가 들렸다.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이 귀여운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은 천사 같았다. 앵벌이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아이들에게 교회가 공부를 도우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파스로 몸을 도배한 이미용팀의 멋진 손길은 100여 명의 아이들을 예쁘고 단정하게 변신시켰고, 마지막 날 수영장 물놀이에서는 아이들이 뽀얗게 되었다.

이외에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마다 최선을 다한 섬김이 있었다. 공만 차도 숨이 차는 환아를 진단하고 지역 병원으로 전원을 연결해 준 심장내과 집사님, 10년 넘은 불룩한 피하 지방종 제거 수술로 환자의 고민을 말끔히 씻은 외과 집사님, 불소 도포 등 온종일 아이들의 입안을 살펴본 치과 선생님들, 매일 맞춤형 성경 말씀과 100kg 망고 자르기에 쉴 틈 없었던 류 목사님, 할머니들에게 금테 돋보기안경을 끼워 주며 압구정동 사모님으로 만들어 준 권사님, 무더운 날씨에 장비상태 체크로 사투하며 혈액 검사를 담당한 권사님, 무거운 의료 장비와 못 걷는 환자를 옮겨 주는 등 굿은일을 마다하지 않은 '정선교과 아이돌 집사님들', 포이렛 소아병원이라 불리는 곳을 맡은 소아과 두 분 권사님, 믿음의 든든한 내과 네 분의 선생님, 국민체조로 팀 전체 아침 운동을 리드한 젊은 아기엄마 마취과 선생님, 진료의 마지막 게이트인 약국의 재빠르고 정확한 손길의 네 분 약사님, 700명분의 어린이 선물 출고 상황을 담당한 집사님 등 ... 성령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사도행전 29장의 기록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무료 시립병원이 있으나 실제로 돈 없이는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우울한 빈민촌 의료현실에서 이번 봉사가 그들에게 복음의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란다. 돌아오는 밤 비행기에서 피곤이 몰려와 좌우로 고개를 흔들며 자다가, 잠결에 캄보디아 해외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온 오케스트라 의료선교부 단원들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띠며 다시 꿈나라에 빠져들었다. 또래보다 작은 포이렛 아이들에게 2024년 성탄예배에서 배편으로 옷을 나누어 주는 꿈을 꾸다가 인천공항 도착 방승으로 잠을 깨웠다.

17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3/17~23

주님께서는 아굽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시편 135:4)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말씀 속으로

1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2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You must not marry and have sons or daughters in this place.”

3 이 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For this is what the LORD says about the sons and daughters born in this land and about the women who are their mothers and the men who are their fathers:

4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 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They will die of deadly diseases. They will not be mourned or buried but will be like dung lying on the ground. They will perish by sword and famine, and their dead bodies will become food for the birds and the wild animals.”

-
- 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한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For this is what the LORD says: "Do not enter a house where there is a funeral meal; do not go to mourn or show sympathy, because I have withdrawn my blessing, my love and my pity from this people," declares the LORD.

- 6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Both high and low will die in this land. They will not be buried or mourned, and no one will cut themselves or shave their head for the dead.

- 7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No one will offer food to comfort those who mourn for the dead - not even for a father or a mother - nor will anyone give them a drink to console them.

- 8 너는 잔칫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And do not enter a house where there is feasting and sit down to eat and drink,

- 9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 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For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Before your eyes and in your days I will bring an end to the sounds of joy and gladness and to the voices of bride and bridegroom in this place.

- 10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나 하거든

“When you tell these people all this and they ask you, ‘Why has the LORD decreed such a great disaster against us? What wrong have we done? What sin have we committed against the LORD our God?’

- 11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then say to them, ‘It is because your ancestors forsook me,’ declares the LORD, ‘and followed other gods and served and worshiped them. They forsook me and did not keep my law.

- 12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ut you have behaved more wickedly than your ancestors. See how all of you are following the stubbornness of your evil hearts instead of obeying me.

-
- 13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So I will throw you out of this land into a land neither you nor your ancestors have known, and there you will serve other gods day and night, for I will show you no favor.’

- 14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However,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it will no longer be sai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who brought the Israelites up out of Egypt,’

- 15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 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

but it will be sai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who brought the Israelites up out of the land of the north and out of all the countries where he had banished them.’ For I will restore them to the land I gave their ancestors.

- 16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But now I will send for many fishermen,” declares the LORD, “and they will catch them. After that I will send for many hunters, and they will hunt them down on every mountain and hill and from the crevices of the rocks.

17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My eyes are on all their ways; they are not hidden from me, nor is their sin concealed from my eyes.

18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I will repay them double for their wickedness and their sin, because they have defiled my land with the lifeless forms of their vile images and have filled my inheritance with their detestable idols.”

19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LORD, my strength and my fortress, my refuge in time of distress, to you the nations will come from the ends of the earth and say, “Our ancestors possessed nothing but false gods, worthless idols that did them no good.

20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Do people make their own gods? Yes, but they are not gods!”

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Therefore I will teach them - this time I will teach them my power and might, Then they will know that my name is the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언합니다(1~13).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되 그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대로 살며 하나님 말씀을 구현하는 예언적 상징을 보여 줍니다. 먼저 그는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2절). 가족과 이웃,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그에게 가정이 없는 것은 완전한 고립을 의미합니다. 이는 혹독한 땅이 될 유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4절). 둘째로 ‘초상집’에 가지 않습니다(5절). 죽음 이후에 사람들끼리 나누는 평강, 인자, 사랑까지도 완전히 제하여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유다에게 내려질 애도마저 없는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잔치’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8절). 심판의 때는 기쁨을 누릴 때가 아닌 애통할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습니다(10절).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죄보다 그들이 더욱 심한 악을 행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 밖에서 주야로 우상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백성을 불러내실 것입니다(14~21).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의 말씀 뒤에 그것으로 마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14절)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방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주”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15절). 길고도 확고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끝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가 이르면 북방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우상을 섬겼던 죄가 살살이 고발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배로 갚아지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의미합니다(18절). 예레미야는 심판 후에 세상 만민이 하나님께 찾아와 자신의 죄를 뉘우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손으로 만든 신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19절). 이 모든 것은 “나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해 있는 일입니다(21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예레미야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결혼과 장례와 잔치가 없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죄의 심각성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2.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백성들의 ‘주’라는 것을 또다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6:44~47 ⁴⁴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⁴⁵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⁴⁶ 마침내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⁴⁷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9

화요일

베드로전서 2:18~21

오늘의 찬송 438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말씀 속으로

- 18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Slaves, in reverent fear of God submit yourselves to your masters, not only to those who are good and considerate, but also to those who are harsh.

- 19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For it is commendable if someone bears up under the pain of unjust suffering because they are conscious of God.

-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But how is it to your credit if you receive a beating for doing wrong and endure it? But if you suffer for doing good and you endure it, this is commendable before God.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To this you were called, because Christ suffered for you, leaving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follow in his step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선으로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18~20).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위하여 땅의 제도에도 복종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정 공동체의 윤리를 가르칩니다. 사환과 아내, 남편을 대상으로 한 가정규범이 등장하는데, 오늘의 단락은 사환들을 향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사환은 특히 가정의 종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이 어떠한지 복종할 것을 명합니다(18절). 그리고 종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상황을 나열하는데, 의롭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름답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모퉁잇돌이 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의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순결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에 대하여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일의 순종들이 모일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21).

이런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대에 권력자가 자기 종에게 대하는 처우가 매우 불의한 모습들이 문헌 가운데에서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종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강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현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인내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발자취를 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21절)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회의 불의한 대우를 감당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듯이 의로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라 말합니다.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저항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부르신 자리에 충성하는 것이며, 이것이 현 상태를 뒤집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의로운 행동으로 도리어 고난을 받았던 상황이 있었나요? 또는 고난을 피하고자 의로운 행동을 알지만 회피했던 적이 있었나요? 20절 말씀을 나의 상황에 적용시켜 봅시다.
2. 현 상태가 불의할지라도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맡은 곳에 충성을 다하라 하십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묵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2:23~25 ²³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²⁴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²⁵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22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He committed no sin, and no deceit was found in his mouth.”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When they hurled their insults at him, he did not retaliate; when he suffered, he made no threats. Instead, he entrusted himself to him who judges justly.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so that we might die to sins and live for righteousness;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For “you were like sheep going astray,” but now you have returned to the Shepherd and Overseer of your soul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22~24).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얻었지만 사회에서는 종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르칩니다. 베드로의 기독교인이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에 불의에 맞대어 그와 같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대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하셨습니다(23절).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어 의로 새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얻게 하셨습니다(24절). 베드로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길을 마땅히 따라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중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단을 이루게 합니다. 불의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며,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2. 이제는 영혼의 목자이신 분께 속해 있습니다(25).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너희가 이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면 그에 맞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힘없고 연약하나 돌봐 주는 이가 없고 이리와 같은 맹수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길 잃은 양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같이 그들의 영혼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는 영혼은 이와 같습니다. 죄 속에 놓인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으며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을 먼저 가신 이가 있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연단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지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고 산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의 고난을 받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남기는 흔적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2. 양은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봅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목자요 감독이신 예수님의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23:1~4 ¹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²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³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⁴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베드로전서 3:1~7

오늘의 찬송 323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말씀 속으로

- 1 아내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Wives, in the same way submit yourselves to your own husbands so that, if any of them do not believe the word, they may be won over without words by the behavior of their wives,

- 2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when they see the purity and reverence of your lives,

- 3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Your beauty should not come from outward adornment, such as elaborate hairstyles and the wearing of gold jewelry or fine clothes,

- 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 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Rather, it should be that of your inner self, the unfading beauty of a gentle and quiet spirit, which is of great worth in God's sight.

5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For this is the way the holy women of the past who put their hope in God used to adorn themselves. They submitted themselves to their own husbands,

6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like Sarah, who obeyed Abraham and called him her lord. You are her daughters if you do what is right and do not give way to fear.

7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Husbands, in the same way be considerate as you live with your wives, and treat them with respect as the weaker partner and as heirs with you of the gracious gift of life, so that nothing will hinder your prayers.

3:7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아내는 온유함으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1~6).

베드로가 가정 공동체의 윤리를 가르치며 사환 다음으로 아내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1a절) 여기서 아내 들은 소아시아의 각 지방에 흩어지면서 믿음이 없는 남편을 두게 된 이들을 의미합니다. 베 드로는 그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1b절) 아내들의 순종 이 복음을 전하는 값진 일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순종은 어떤 모양을 띠고 있을까요?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순종의 중점은 내면에 있습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내면과 외면을 단장하며 경건과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방 땅에 있는 여인들이 믿음이 없는 남편에 게 순종하는 것은 때로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의 능 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아내들에게 베드로는 믿음의 전력을 다 할 것을 강조합니다.

2.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7).

나아가 남편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 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7a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던 당시 남편이 없는 과부는 사회로부터 거의 도태되며 어려웠을 시기입니다. 아내 는 남편에게 소속되어 거주지, 경제, 지위 등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때 였습니다. 여성은 연약한 그릇일 수밖에 없고, 남편이 지켜 줘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거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존중하라고 전합니다 (7b절). 아내가 순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같이, 남편은 존중으로 아내에게 믿음을 보여야 합 니다. 베드로는 가정 공동체들이 당대의 사회 규율을 잘 따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 여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도를 순종하되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는 아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나의 일상적인 행실은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모습입니까?
2.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이해 하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합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28:1~6 ¹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²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³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의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 나무와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⁵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⁶ 아들딸 손자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에 평화가 깃들기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Finally, all of you, be like-minded, be sympathetic, love one another, be compassionate and humble.

-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Do not repay evil with evil or insult with insult. On the contrary, repay evil with blessing, because to this you were called so that you may inherit a blessing.

-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For, "Whoever would love life and see good days must keep their tongue from evil and their lips from deceitful speech,

-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They must turn from evil and do good; they must seek peace and pursue it.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어
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For the eyes of the Lord are on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attentive to their prayer, but the face of the Lord is against those
who do evil.”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이 땅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8~9).

가정을 위한 권면 이후 그리스도인 모두를 향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8절)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입니까? 성도의 교제를 지향하며 모두 한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 주신 사랑을 따라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된 이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복을 빌어야 합니다(9절). 그리스도인은 아직 육신에 속해 있지만 하늘의 삶을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 복을 받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축복을 통해 악을 선으로 돌이켜야 합니다(10~12).

베드로가 시편 34편을 인용하며 말씀을 이어 갑니다. 10~12절의 말씀은 9절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시편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일까요?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10~11절)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악에서 떠나 의인이 되길 요청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의인의 행동에서 특히 입을 사용하는 방식이 두드러집니다. 악을 선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악과 모욕을 축복으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복을 빌며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베드로의 편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얼마나 많은 유희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악과 모욕을 축복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매 순간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입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어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72:23~28 ²³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²⁴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²⁵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²⁶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뉘의 전 부이십니다. ²⁷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²⁸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1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Judah's sin is engraved with an iron tool, inscribed with a flint point, on the tablets of their hearts and on the horns of their altars.

- 2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Even their children remember their altars and Asherah poles beside the spreading trees and on the high hills.

- 3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My mountain in the land and your wealth and all your treasures I will give away as plunder, together with your high places, because of sin throughout your country.

- 4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Through your own fault you will lose the inheritance I gave you. I will enslave you to your enemies in a land you do not know, for you have kindled my anger, and it will burn forever.”

-
- 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Cursed is the one who trusts in man, who draws strength from mere flesh and whose heart turns away from the LORD.

- 6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That person will be like a bush in the wastelands; they will not see prosperity when it comes. They will dwell in the parched places of the desert, in a salt land where no one lives.

- 7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But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confidence is in him.

- 8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They will be like a tree planted by the water that sends out its roots by the stream. It does not fear when heat comes; its leaves are always green. It has no worries in a year of drought and never fails to bear fruit.”

- 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beyond cure. Who can understand it?

- 10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I the LORD search the heart and examine the mind, to reward each person according to their conduct, according to what their deeds deserve.”

- 11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Like a partridge that hatches eggs it did not lay are those who gain riches by unjust means. When their lives are half gone, their riches will desert them, and in the end they will prove to be fools.

- 12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A glorious throne, exalted from the beginning, is the place of our sanctuary.

- 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LORD, you are the hope of Israel; all who forsake you will be put to shame. Those who turn away from you will be written in the dust because they have forsaken the LORD, the spring of living water.

- 14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Heal me, LORD, and I will be healed; save me and I will be saved, for you are the one I praise.

-
- 15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They keep saying to me, "Where is the word of the LORD? Let it now be fulfilled!"

- 16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사오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I have not run away from being your shepherd; you know I have not desired the day of despair. What passes my lips is open before you.

- 17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Do not be a terror to me; you are my refuge in the day of disaster.

- 18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Let my persecutors be put to shame, but keep me from shame; let them be terrified, but keep me from terror. Bring on them the day of disaster; destroy them with double destruction.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죄는 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1~11).

금강석 철필로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아야 할 것을 것을 새긴다는 말씀입니다(1절). 유다의 죄가 그렇게 새겨졌습니다. 자손들은 대대로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죄로 땅에서 쫓겨나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말씀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7절). 그는 시편 1편의 말씀같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위와 가뭄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끄떡없이 이겨 낼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인지 아닌지 사람의 심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입니다. 거짓된 예언자들처럼 ‘평안하다’, ‘회복할 것이다’ 말하여도 겉으로 나오는 모습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고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옵하실 것입니다.

2. 예레미야의 탄식에 유다의 죄가 심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12~18).

유다의 죄는 금강석으로 마음에 새겨져 절대 지워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대대로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흠에 쓴 것처럼 쉽게 지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덧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신탁을 도저히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며 빈정거리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15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레미야가 두려움을 느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14절). 자신에게 두려움이 되지 마시고 피난처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박해하는 자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 반대로 그들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당하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18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도 부담감과 박해가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올수록 유다의 죄와 비방이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현재에는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결과는 뚜렷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2. 박해가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다가오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심판이 있지 않을지라도, 우상은 분명히 헛된 것임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간구하십시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6:1~6 ¹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²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³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 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 올 때에, ⁴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까. ⁵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⁶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 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인간, 하나님의 형상

글 김경래 (부목사)

창세기 1:26-28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역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과 닮았을 것이란 생각으로 이끌리며, 곧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의 외형과 비슷하다는 오해를 낳게 된다. 이러한 오해는 27절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어구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시며 사용하신 복수형 대명사 ‘우리를 결합해 더 큰 오해를 만든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마치 그리스도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처럼 남신과 여신으로 성별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사이비들의 해괴한 결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지만 거대한 우주의 창조자로 온 우주에 편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형태와 동일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추론이며, 이미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 버려진 신인동형설적인 오해이다. 요한복음 4:24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무엇보다 빌립보서 2:6-7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증언한다. 우리의 육체적 모습은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종의 형체와 같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래전 교부들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점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가 아닌 영혼에 있다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다스리라’고 주어진 책임을 보며, 특별히 지혜와 이성을 강조했다.

근대의 신학자들은 모세를 통해 창세기의 말씀이 히브리인들에게 처음 선포된 상황을 바라보았다. 파라오가 스스로를 태양신 ‘라’의 형상 또는 ‘호루스’의 화신으로 칭하며 히브리인들을 억



압하고 착취하던 때다. 창세기는 태양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며, 파라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다스리는 자, 만물의 영장의 위치는 파라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것이었다. 이것은 자신을 신격화하여 백성들을 지배했던 파라오를 비롯한 고대 국가 왕족들의 지배논리를 파헤치는 놀라운 선언이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선포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에 평등하다"는 것이며, 이는 약 3,500년 전부터 뿌려진 천부인권사상의 씨앗이다.

현대의 신학자들은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을 보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 안에 사랑으로 연합하며 하나의 뜻을 이루신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는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더 분명해진다(골 1:15).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삶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며(빌 2:8),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며(마 20:28), 사랑하신 삶이다. 그리고 [미숙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책임은 그의 삶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고후 3:18). 그리고 그 삶의 지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화합을 이루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24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3/24~30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시편 148:14)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요한복음 12:1~8

오늘의 찬송 85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말씀 속으로

-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Jesus came to Bethany, where Lazarus lived, whom Jesus had raised from the dead.

-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Here a dinner was given in Jesus' honor. Martha served, while Lazarus was among those reclining at the table with him.

-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Then Mary took about a pint of pure nard, an expensive perfume; she poured it on Jesus' feet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 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But one of his disciples, Judas Iscariot, who was later to betray him, objected,

-
-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Why wasn't this perfume sold and the money given to the poor? It was worth a year's wages.”

-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He did not say this because he cared about the poor but because he was a thief; as keeper of the money bag, he used to help himself to what was put into it.

- 7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Leave her alone,” Jesus replied. “It was intended that she should save this perfume for the day of my burial.”

-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You will always have the poor among you,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12:2 았은 자
6:10 난하주를 보라

12:5 데나리온
은전의 명칭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마리아가 온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1~3).

유월절 몇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가십니다. 나사로는 앞장 11장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살아난 것을 주변의 이들도 보았고 무엇보다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까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 것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에 잔치가 준비되고, 나사로도 가운데에 끼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자 온 집 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이 향유는 여인의 결혼지참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심정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나사로의 부활로 인한 마리아의 고백도 이 사건과 연결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심을 온 마음으로 믿으며 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향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2.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먼저됩니다(4~6).

그러나 제자 중 가롯 유다는 왜 향유를 팔아 도리어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냐며 마리아를 질책합니다. 말씀에는 그가 진실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탐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리아와 반대 진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의 탐심은 예수님을 넘겨 버리기까지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련의 과정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7절)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로서 가장 합당한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8절) 예수님께서 곧 임박한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의 모든 일보다 가장 앞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온 땅에 미칠 때에 참된 긍휼과 회복, 화해와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마리아가 어떠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를 모두 부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2. 향유를 부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될 사건인 십자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처럼 나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5:3~7 ³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⁴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⁵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⁶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⁷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 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 보아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26

화요일

요한복음 12:20~36

오늘의 찬송 144 예수 나를 위하여

 말씀 속으로

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Now there were some Greeks among those who went up to worship at the festival.

21 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They came to Philip, who was from Bethsaida in Galilee, with a request. "Sir," they said, "we would like to see Jesus."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니

Philip went to tell Andrew; Andrew and Philip in turn told Jesus.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Jesus replied,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Very truly I tell you,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Anyone who loves their life will lose it, while anyone who hates their life in this world will keep it for eternal life.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Whoever serves me must follow me; and where I am, my servant also will be. My Father will honor the one who serves me.

27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Now my soul is troubled, and what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No, it was for this very reason I came to this hour,

12:25 생명
또는 영혼

12:27 마음
또는 영혼

26

화

-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Father, glorify your name!" Then a voice came from heaven, "I have glorified it, and will glorify it again."

- 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The crowd that was there and heard it said it had thundered; others said an angel had spoken to him.

-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Jesus said, "This voice was for your benefit, not mine.

- 31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의 쫓겨나리라

Now is the time for judgment on this world; now the prince of this world will be driven out,

-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And I, when I am lifted up from the earth, will draw all people to myself."

33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
십이러라

He said this to show the kind of death he was going to die.

34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The crowd spoke up, "We have heard from the Law that the Messiah will remain forever, so how can you say,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Who is this 'Son of Man'?"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
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
나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Then Jesus told them, "You are going to have the light just a little while longer. Walk while you have the light, before darkness overtakes you. Whoever walks in the dark does not know where they are going.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Believe in the light while you have the light, so that you may become children of light."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Jesus left and hid himself from the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인자가 들려질 것입니다(20~33).

유월절에 헬라인이 찾아오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를 준비하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다가왔다고 말씀하십니다(2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가 시며 영광을 받으실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24절). 공관복음에서 여러 가지 씨앗의 비유가 있지만 본 단락의 밀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밀알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온 만물의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상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때이지만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고난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십니다(28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30절).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십니다. 곧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겠고 예수님께서 들려면 주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게 될 것입니다(32절).

2. 빛이 있을 때에 빛에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34~36).

무리들이 구약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묻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직접적이지 않고 비유를 통해 나타냅니다. ‘빛’이 잠시 동안만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시며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광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 빛이신 예수님께서 들려질 것입니다.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 빛이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들려짐을 받게 되면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빛이 없고 그들에게 잠시 어둠이 임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붙잡히지 않도록 근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빛이 옆에 있을 때 “빛을 믿으라”고 촉구하십니다(36절). 곧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빛은 이 땅을 지나갈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어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빛은 곧 들려지나 부활과 성령의 때에 제자들을 비추실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의 때가 곧 영광의 때라 말씀하시며 그날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시다.
2. 예수님께서 “빛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으로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빛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7:1~4 ¹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²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³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⁴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요한복음 13:1~20

오늘의 찬송 299 하나님 사랑은

 말씀 속으로

-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It was just before the Passover Festival. Jesus knew that the hour had come for him to leave this world and go 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he loved them to the end.

-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The evening meal was in progress,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to betray Jesus.

-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returning to God;

-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so he got up from the meal, took off his outer clothing, and wrapped a towel around his waist,

-
- 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After that, he poured water into a basin and began to wash his disciples' feet, drying them with the towel that was wrapped around him,

-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He came to Simon Peter, who said to him, "Lord, are you going to wash my feet?"

- 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Jesus replied, "You do not realize now what I am doing, but later you will understand."

- 8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No," said Peter,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Jesus answered, "Unless I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

13:8 절대로
또는 영원히

- 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Then, Lord,” Simon Peter replied, “not just my feet but my hands and my head as well!”

-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Jesus answered, “Those who have had a bath need only to wash their feet; their whole body is clean. And you are clean, though not every one of you.”

-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For he knew who was going to betray him, and that was why he said not every one was clean.

- 12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When he had finished washing their feet, he put on his clothes and returned to his place. “Do you understand what I have done for you?” he asked them.

-
-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and rightly so, for that is what I am.

-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Now that I,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should wash one another's feet.

-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
였노라

I ha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Very truly I tell you, no servant is greater than his master, nor is a messenger greater than the one who sent him.

-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Now that you know these things, you will be blessed if you do them.

- 18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I am not referring to all of you; I know those I have chosen. But this is to fulfill this passage of Scripture: ‘He who shared my bread has turned against me.’”

- 19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둬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I am telling you now before it happens, so that when it does happen you will believe that I am who I am.”

-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Very truly I tell you, whoever accepts anyone I send accepts me; and whoever accepts me accepts the one who sent m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1~11).

요한복음에는 13장부터 제자들을 향한 본격적인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 주십니다(1절). 식사를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며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종이 하던 일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8절). 그러자 베드로는 온 몸을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씻기시는 이유를 아직은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씻겨 주시는 것은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만 씻겨질 수 있습니다.

2. 예수님께서 본을 보임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12~20).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15절)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복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순종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십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며 하나님의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한 것을 본받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14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보며 당황했듯이 세상은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 놀라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무지하고 아직 죄인 된 중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먼저 섬겨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겸손히 감사드립니다.
2.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기 위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에 나의 발도 가득히 잡혀 있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섬기는 주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6:7~9 ⁷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⁸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⁹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31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When he was gone, Jesus said, "Now the Son of Man is glorified and God is glorified in him,

- 32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If God is glorified in him, God will glorify the Son in himself, and will glorify him at once,

- 33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My children, I will be with you only a little longer. You will look for me, and just as I told the Jews, so I tell you now: Where I am going, you cannot come.

-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By this everyon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31~33).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때입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은 절망이 아니며 모든 죄를 사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나 곧 떠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아직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 새 계명이 주어집니다(34~35).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거대한 역사 속에서 내려온 계명이 예수님을 통해 정리됩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34절) 구약의 중심을 떠받들어 온 거대한 계명이 예수님 앞에서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됩니다. 그러나 결코 작은 계명이 아닙니다. 중요함이 한 터럭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주석이 될 수 있는 핵심 단어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줄곧 가르치고 보여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새 계명을 주시며 이것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 십자가는 사랑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낸 것을 묵상하십시오.
2. 그리스도인의 새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 졌습니까? 주께 받은 은혜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6:1~2, 12~14 ¹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²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¹²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¹³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¹⁴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요한복음 19:17~30

오늘의 찬송 149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말씀 속으로

- 17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Carrying his own cross, he went out to the place of the Skull (which in Aramaic is called Golgotha).

- 18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There they crucified him, and with him two others - one on each side and Jesus in the middle.

- 19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Pilate had a notice prepared and fastened to the cross. It read: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 20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Many of the Jews read this sign, for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was near the city, and the sign was written in Aramaic, Latin and Greek.

21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The chief priests of the Jews protested to Pilate, "Do not write 'The King of the Jews,' but that this man claimed to be king of the Jews."

22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Pilate answered,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23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것에 나눠 각각 한 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When the soldiers crucified Jesus, they took his clothes, dividing them into four shares, one for each of them, with the undergarment remaining. This garment was seamless, woven in one piece from top to bottom,

24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Let's not tear it," they said to one another. "Let's decide by lot who will get it." This happened that the scripture might be fulfilled that said, "They divided my clothes among them and cast lots for my garment." So this is what the soldiers did,

- 25 예수와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Near the cross of Jesus stood his mother, his mother's sister, Mary the wife of Clopas, and Mary Magdalene.

- 26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When Jesus saw his mother there, and the disciple whom he loved standing nearby, he said to her, "Woman, here is your son,"

- 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and to the disciple, "Here is your mother." From that time on, this disciple took her into his home.

- 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Later, knowing that everything had now been finished, and so that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Jesus said, "I am thirsty."

-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A jar of wine vinegar was there, so they soaked a sponge in it, put the sponge on a stalk of the hyssop plant, and lifted it to Jesus' lips.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
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When he had received the drink, Jesus said, "It is finished."
With that,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17~27).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 영광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좌우편의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빌라도가 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이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습니다. 이 팻는 죄패로 예수님의 죄목을 정확히 하는 용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장면이 유대와 이스라엘과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비쳐집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하나씩 취해 갑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는 이 장면은 시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세상은 언약을 받습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2.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갑니다(28~30).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이 마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마지막으로 예언을 성취하십니다(28절). 예수님의 오심은 태초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의 모든 순간은 예언의 성취를 보여 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은 크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마치자 “다 이루었다”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십니다(30절). 그러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같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지도 우리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가 전적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시어 우리가 그 안에서 의를 얻게 하셨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 땅 끝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묵상합니다.
2.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2:16~18, 23~24 ¹⁶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¹⁷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¹⁸ 나의 겹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²³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²⁴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38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Later, Joseph of Arimathea asked Pilate for the body of Jesus. Now Joseph was a disciple of Jesus, but secretly because he feared the Jewish leaders. With Pilate's permission, he came and took the body away.

- 39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He was accompanied by Nicodemus, the man who earlier had visited Jesus at night. Nicodemus brought a mixture of myrrh and aloes, about seventy-five pounds.

- 40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Taking Jesus' body, the two of them wrapped it, with the spices, in strips of linen. This was in accordance with Jewish burial customs.

41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At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there was a garden,
and in the garden a new tomb, in which no one had ever been
laid.

42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Because it was the Jewish day of Preparation and since the
tomb was nearby, they laid Jesus ther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둡니다(38).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때 요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요셉은 공회원으로서 지위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신분 때문이었는지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를 공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숨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신 후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기를 구합니다. 빌라도는 요셉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팻말을 바꾸라는 요청은 거부하였지만 요셉의 요청은 들어 줍니다. 빌라도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는 나서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결단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 늦었다고 생각하게 될 때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뒤를 변화된 제자의 마음이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2.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39~42).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 중의 한 명인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께 거둢남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3장).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39절). 1리트라는 약 327그램이니 100리트라는 3만 2700그램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은 향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는 가까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뒷길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몇 마디 없이 묵묵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둡니다. 살아계실 적에 찬란한 빛과 같던 예수님께서 고통의 길을 마치신 모습을 보는 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물과 피를 쏟은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실패자의 모습과도 같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 밑에서 결단한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서의 일을 묵상해 봅시다.
2. 예수님의 가장 힘없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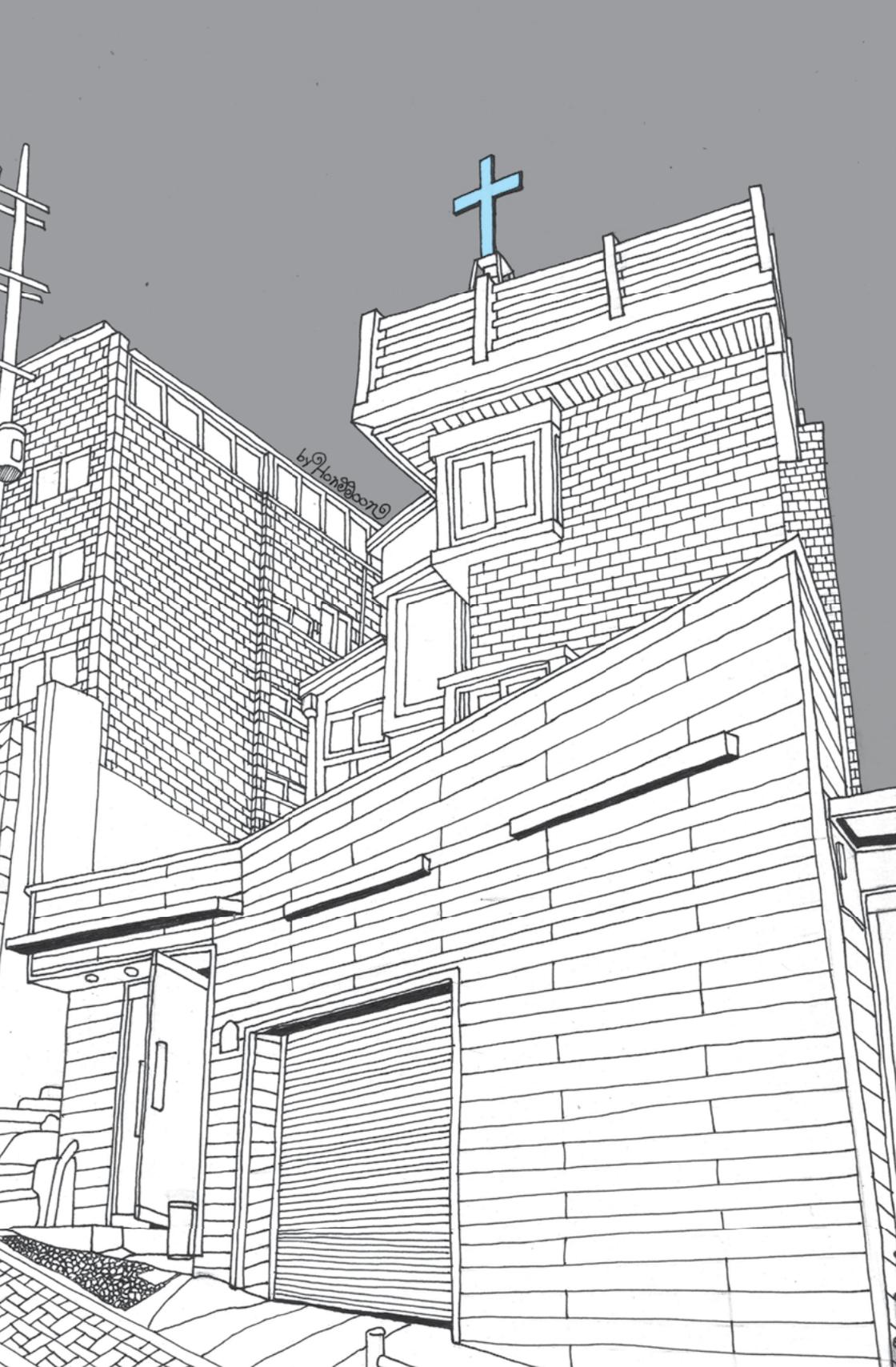
시편 31:1~3, 15~16 ¹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²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³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¹⁵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¹⁶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Cross

홍군의 말 |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풍경에 십자가가 참 많이 보인다. 그만큼 교회가 많다는 뜻일 거다. 하지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또 교회라고 다 칭찬받지도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많은 교회, 이 많은 십자가들을 좋게 보지 않기도 한다. 그래도 난 거리에서 골목에서, 어디에서든 십자가를 볼 수 있어서 좋다. 십자가는 교회가 있다는 의미를 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진정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희생과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일상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거나 외로울 때 거리에 있는 십자가를 보며 온전한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음을 되새기게 된다.



31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3/31~4/6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사편 118:14)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숭고한 길을 뒤따르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새 날을 맞이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길을 잃을 때,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사랑을 찾고,
숭고한 희생의 모습에 목말라 합니다.
과연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사랑과 희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비쳤던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분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을
각자의 삶에서 온전히 회복해 내어,
온갖 상처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사회 속 모든 이들의 짓눌리고 억울한 마음 안에
희망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 2024. 2. 7(수) 새벽기도회 중에서

새 학기, 새 찬양의 기쁨을 드려요!

글 교회학교 아동팀

초등2부 4학년 한아인 학생

2024년 초등2부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워서 말씀을 많이 알고 믿음이 자라면 좋겠어요. 분반 공부에서도 친구들과 즐겁고 사이좋게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초등2부 우성민 전도사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누리며, 성령님과 친밀한 사귀이 일어나는 초등2부 아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년1부 6학년 오우림 학생

이번 해도 예배를 통해서 저와 다른 친구들, 동생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가사로 위로가 될 때가 많은데 다른 친구들도 저와 같이 찬양에 위로 받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소년1부 양주희 전도사

2024년 하나님을 닮아 가는 소년 1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주신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사랑으로 빚어 나가기를,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을 닮아 세상의 죄악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사랑으로 밝히 비추는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사랑으로 밝게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올 한 해 소년 1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세워 나가길 다짐하는 소년 1부 어린이들,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년2부 6학년 김유현 학생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배를 통해 서로의 믿음을 응원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소년2부 김미리내 목사

올해 소년2부 표어는 “here and hear”입니다. 가정, 학교, 교회 등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here)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소년2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어아동부 4학년 최서이 학생

영어아동부에 친구들이 더 많이 와서 주일 예배당 자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여름성경학교에 “워터파크”도 기대가 됩니다.

I hope a lot of new friends come to the JKS chapel, so all of the seats are full when we worship. Also, the water park must go on in summer bible school!

영어아동부 수상진 전도사

‘영어리는 특별한 소통의 매개체를 사용하며 드리는 영어아동부 예배를 통해서 친구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아 가고, 매달 새로운 주제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어리는 도구’를 사용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준비가 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Worship | 가정예배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대상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은 교회학교 가정

모임 일정

3/23, 4/27, 5/25, 6/29 (토),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기간

1/28 - 2/11(주일)

신청 방법

신청 링크

문의

02 . 512 . 9191(내선 352)



3월 3일(주일) ~ 9일(토) |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하는 가정

찬양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도 인도자 (가족들이 순서대로 한 주씩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믿음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중 실수했던 일들, 마음이 불편했던 시간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정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1:1~6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도다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건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도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도다

+ 말씀요약

사람은 자신이 머물고 가까이 여기는 사람이나 장소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좋은 것들과 가까이 여기고 좋은 자리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삶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되지만, 좋지 않은 것들과 가까이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삶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가까이하지 않고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나눔 1. 요즘 들어 내가 주로 가까이 여기며 지내는 사람(장소)은 누구인지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장소)과 주로 나누는 이야기는 어떠한 내용인지도 나누어 보세요.

2.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기며 살기 위해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세요.

기도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기며 살아가고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간도문

3월 10일(주일) ~ 16일(토) |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가정

찬양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기도 인도자 (가족들이 순서대로 한 주씩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2:1~11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3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앙을 불러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 말씀요약

오늘 본문 말씀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어떤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아무리 풀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어려운 수학문제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예수님으로 인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은혜를 얻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나눔 1. 요즘 나에게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2.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세요.

기도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3월 17일(주일) ~ 23일(토) |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정

찬양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 인도자 (가족들이 순서대로 한 주씩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시고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이 오늘 하루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2:1~2

1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말씀요약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들의 인생에는 중요한 목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에 중요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도록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말씀나눔**
1.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만일 예수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세요.

기도 하나님 아멘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기도 인도자 (가족들이 순서대로 한 주씩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심이 이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12:1~6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 말씀요약

우리에게는 육신의 혈통을 따르는 조상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조상 외에 신앙 안에서 조상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신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움직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도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삶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나눔 1. 나는 삶 가운데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데 익숙한가요? 삶에서 내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나 사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세요.

기도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루살렘 입성

글 · 그림 이호연 (성도)

마태복음 21장

⁷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⁸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⁹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62 X 112 cm
Oil on canvas
2013



현화이야기 26

3월,
우리의 고백





1월 21일 주일

글 안진현 (권사)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주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월 28일 주일

글 김경은 (집사)

포근하게 우리를 안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따스하고 평안한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 4일 주일

글 이영주 (집사)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 2:2-4



가정이 희망이 되는 길 2 떠남과 연합

글 홍인중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교수)



가정이 희망으로 가는 길에는 떠남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떠나야 하며, 새로운 가정은 떠남을 통해 연합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주신 최초의 주례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입니다. 부모로부터 건강한 떠남과 배우자와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친밀한 하나됨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희망으로 가려면 건강하게 떠나보내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태중에 아기가 엄마와 한 몸으로 있다가 분리되어 떠남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양육하도록 위임받아 키우는 청지기이며, 목표는 자녀가 독립적 존재로 성장하여 건강하게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남은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친밀함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영적으로 독립된 자녀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치료 이론가 중에 머레이 보웬(Murray Bowen)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개인의 내부에서 정서적 기능과 지적 기능 사이의 융합이나 분화 수준에 따라 감정과 사고를 구별하는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분화 수준이 낮고 융합의 정도가 클수록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아 민감하고 의존적이 됩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갈등과 불안은 제3자인 자녀를 끌어들여 삼각관계를 이룸으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자녀는 원가족(부모)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분화를 이루지 못하여 자기분화 수준이 낮게 되고, 배우자와 건강한 관계 형성이 어렵고, 정서적 융합이 더 강하게 되어 갈등을 겪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고부 갈등이나 장모-사위 갈등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손주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가 늘어나면서 부모, 손주 3세대에서 불편한 삼각관계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어쩌면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건강한 자아분화를 이루도록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독립성과 개별성을 유지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건강한 자기분화 수준을 가진 자녀는 배우자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 반동없이 조절할 수 있는 힘과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남이 희망으로 가는 부부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떠남은 새로운 연합의 목적을 향한 여정입니다. 친밀한 연합을 통해 부부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 드리는 것으로 부부가 싸움이 났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각자 자신의 부모님께 따로 챙기다 보니 “왜 시집에는 더 많이 보내냐, 친정은 무시하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중재를 위해서 상담을 하던 중에 어느 날 남편이 말합니다.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나를 낳아 주신 어머니야 바꿀 수가 없으니 차라리 아내와 이혼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노부모를 돌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낳으신 부모는 못 바꾸기에 아내를 바꾸겠다는 발상은 연합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는 ‘이교로, 풀로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접착제로 붙여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친밀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강제로 분리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찢어져 손상됨을 전제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1촌의 관계이지만 부부지간은 무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보았기에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떠남과 연합의 결과는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창 2:25).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에덴동산에서 죄없던 때에 삶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인간은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가리우고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창 3:7-8). 하나님께서 타락한 부부가 숨었을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고,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창 3:9-10). 죄지은 인생은 죄를 가리고 숨기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부부가 연합하여 친밀한 한몸을 이루고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됨이 죄의 용서와 회복으로 두려움을 이기듯이, 부부가 친밀한 하나됨으로 죄와 수치를 이기는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듯이, 서로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도 받아주고 가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롬 10:11).

부부지간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말하거나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트라우마라든지, 숨기고 싶은 과거라든지, 배우자가 알까 두려워 숨기는 작은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수지청즉무어(水至清則無魚, ‘지나치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부부가, 가족이 서로 가리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자신의 죄성과 나약함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실망하고 떠날까봐 두렵



기 때문입니다. 에덴동산으로의 회복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가 있고 부족함에도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서로를 가려주고 덮어 주는 수용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 4:8) 라고 말씀합니다. 떠남으로 하나된 부부와 가족은 서로의 허물을 품고 덮어 주는 친밀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하나님의 주례사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⁵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⁶ 그러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5-6).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굳게 맺어져 한 몸이 된다. 남자와 여자의 이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와 가족의 친밀한 연합을 방해하거나 그들을 갈라놓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품인 배우자가, 가족이 더욱 빛나는 작품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결혼을 앞둔 여러분! 건강하게 독립을 꿈꾸십시오. 자녀들의 독립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건강하게 떠나보낼 준비를 하십시오. 가정이 희망으로 가는 희망로 ^{希望路}에는 떠남과 연합을 통해 수치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떠남과 연합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희망의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믿음과 투자

글 방선기 (목사, 일터개발원 이사장)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하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전에도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보편화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합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투자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시중은행이 홍콩의 주가연계증권^{ELS}이라는 투자 상품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했는데 이것의 주가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국민은행을 비롯한 여러 시중은행이 ELS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애초에 금융 기관에서 이런 것을 판매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라도 중단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이런 영업을 시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조금 충격적이다.



이 두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투자가 우리 생활 속에 파고 들어와서 점점 더 깊이 자리잡게 되는 것을 느낀다. 예전에는 투자하면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 영역이 생겨나면서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다. 투자 행위가 보편화되면서 개인의 재정적인 행위 중에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될 전망이다.

잉여 자금이 있는데 은행에 적금하지 않는다면 투자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되면 크리스천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목사님들 중에는 크리스천은 이런데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의 돈을 어떤 영역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전도서 1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일곱이나 여덟로 나누어 하여라”(표준새번역) 그 옛날에도 오늘날 우리가 하는 투자와 같은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이 순간에도 믿음에 기초를 두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크리스천이 투자에 임할 때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필요할까? 투자를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크리스천은 투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투자에 관한 능력을 주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람에 따라 능력을 주신 영역이 다르고, 능력의 수준도 다르다. 그러므로 먼저는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투자를 해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이다.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데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투자에 대한 능력을 주셨는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단 투자를 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잠언 28장 19~20절 말씀이 도움이 된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썩게 가난하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이 말씀은 투자하는 크리스천에게 두 가지 면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 준다.

하나는 **내가 투자를 하는데 허황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누군가 큰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도 그런 대박을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투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투자한다면 실패하기 쉽다. 다른 하나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속히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부자가 되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시지만 빨리 부자가 되려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투자하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한다.

셋째, **크리스천은 투자할 때 투자 수익을 요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투자가 투기로 변하는 것은 사람들이 요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투자 행위가 우연에 의존하는 도박과 비슷해진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믿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전 5:19)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다.

넷째, 마지막으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남겼을 때,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그 수익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넉넉히 누릴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신다. 그런데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재물 그 이상으로 주시기도 한다. 이때 수익을 거둔 크리스천은 남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청지기의 모습이다.

투자가 보편화된 세상이다.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투자 자체를 금하지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투자에 임하기를 원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이것이 투자 행위에 있어서도 믿는 사람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이지 않을까.

1월 넷째 주

제직 수련회

지난 1월 17일 본당에 권사, 집사, 구역장, 권찰을 비롯해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찬양대 및 교사까지 올 한 해 교회를 섬기게 된 직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처음으로 제직자가 되어 수련회에 참석한 신임 집사들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 담임목사의 저서를 선물로 받았다. 박은미 목사가 찬양을 인도했고, 임현철 장로가 회중을 대표해 기도를 올렸다. 강사로 선 손신철 목사는 소망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추억을 먼저 나누며 ‘넘치는 은혜’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회개의 삶을 살며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시고 긍휼, 사랑, 은혜, 자비와 넓은 마음을 가지므로써 믿음이 깊어질 것이라고 권면했다. 담임목사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러 온 손신철 목사에게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냈다. 또 신임 집사로 세움받은 백 70여 명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교회 모든 제직을 박수로 격려했다. 참석자들은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기도과 봉사의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리라 다짐했다. 직분자로서 올 한 해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기로 주님께 약속한 소망의 성도들, 이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길 소망한다.



2월 둘째 주

2024 겨울 비전트립



대학부와 청소년팀이 지난 1월 국내의 5개 지역에서 겨울 비전트립을 진행했다. 대학부는 ‘flow:er, 그리스도의 생명을 꽃피우는 사람’이란 주제 아래 78명의 부원들이 참여했다. 에티오피아 팀은 남부지역의 달라를 찾아 영어 캠프를 진행했다. 벽화를 그려 교실을 환하게 꾸미고 문화 공연도 선보였다. 필리핀팀은 카비테 지역을 갔다. 세포미션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열고, 미술과 체육 등의 교육 사역과 공연도 펼쳤다. 또 산죽 마을로 들어가 아이들을 만나고 성경학교를 열었다. 양승아 목사와 함께한 팀원 15명은 6박 7일 동안 i국가에서 비전트립을 진행했다. 염의섭 목사를 필두로 한 대학부원 14명은 제주도로 향했다. 제주 서안 길을 따라 선교 역사의 현장을 걸으며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발자취를 따르기로 다짐했다. 청소년팀도 ‘mission platform’을 주제로 4년 만에 해외 비전트립을 재개했다. 교회학교 담당 이재겸 목사와 팀원 34명은 캄보디아 프놈펜 아레익삭 교회를 찾아 성경학교를 열었다. 미술과 교육활동,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고, 미화 사역에도 힘썼다. 현지 교회에서 태권도, 부채춤 등 문화 공연과 복음 무언극을 함께 선보였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청년, 청소년들의 뜨겁고 아름다운 경험이 영적 성장과 성찰의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2024 | 03

발행인 김경진
편집위원 윤환
유지미
김영규
홍성민
이순기
김경래
편집주간 류현조
편집장 김수진
편집팀 홍성찬
홍희선
디지털콘텐츠 조성실

디자인 워크워크
인쇄 금호인쇄

발행일 2024년 2월 24일(통권 147호)
발행처 소망교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구 신사동 624)
문의 02-512-9191

알립니다

소망 성도님들의 이야기(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 신앙간증)를 보내 주세요.

보내실 곳 : somangtpd@naver.com

허니브리지 14기

Honey Bridge 14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1박 2일 행복한 모임에
소망의 신혼부부를 초청합니다.



2024. 3. 8 Fri - 3. 9 Sat

더케이호텔 서울 (양재)

강사 : 김경진 담임목사 및 외부 강사

허니브리지는 신혼부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가교로서의 모임입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피로회복 season4

‘피로회복’ 프로젝트는 회복의 사순절을 보낸 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눔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역입니다.
코로나 이후 헌혈 수급이 어려운 이때 자발적 참여로 올해 4회를 맞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난치병 환우를 위한 지속성과 진정성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에도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참여 방법



신청 2024. 2. 14(수) - 3. 31(주일)

일시 2024. 3. 31(주일) 오전 08:30 - 오후 4:00

장소 본당 앞 헌혈 버스 : 신분증 지참

신청서 QR 코드

사랑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